

“공생의 빛으로...새로운 100년 도약 다짐”

공생복지재단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사람으로 이어온 100년, 이제는 ‘공생의 빛’으로 미래를 엮는다.”

국내 최장수 아동복지시설인 공생복지재단이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공생복지재단은 23일 오후 1시30분 목포 공생원 강당에서 추진위원, 지역 인사, 후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과 문익수 문태학원 이사장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추진위원회에는 정현택 회장, 김광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회장, 박정수 목포농협장, 조용안 변호사 등 지역 인사 28명과 조생구 한사랑병원장, 국방현 초원건설 대표이사, 서행조 서한산업개발 대표 등 재단 전·현직 임원 18명(당연직) 등 총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출범식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리고 재단의 새로운 비전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정현택·문익수 공동추진위원장 위촉

지역 인사·임원 등 50여명 위원으로

체계적·지속 가능한 복지 비전 확립

오는 2028년 ‘시민축제형’ 행사 추진

됐다.

재단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확립해 100주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며 2028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목포시민의 축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날 행사에서는 설립 100주년 기념 로고 &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슬로건 대상 ‘공생의 빛으로, 세상을 바꾸다’ 등 입상자 6명에 대해 시상했다.

1928년 10월15일 설립된 공생복지재단은 윤치호 전도사의 ‘서로사랑’ 이념과 윤학자 여사의 사랑·희생정신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3천여명의 아동을 품어왔다.



(사)공생복지재단이 23일 목포 공생원 강당에서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문익수 문태학원 이사장, 오병인 (사)공생복지재단 회장.

일제강점기 시절, 목포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공생원을 지원하며 설립자 윤학자 여사를 지지했던 연대의 정신은 지금까지 재단의 뿌리가 되고 있다.

앞서 2023년 일본의 뜻있는 인사들이 ‘목포시민 감사비’를 공생원 내에 건립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자매법인들과 함께 ‘모

두가 행복하게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윤기 명예회장은 “우리 지역 최초의 100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생가족과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 달라”며 “지나온 100년의 발자취를 딛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의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5·18재단-광주전남혈액원 ‘오월정신·헌혈 확산’ 협약

5·18기념재단은 2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5·18정신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5·18 정신계승 관련 시민교육 활성화 ▲5·18민주운동 및 헌혈 홍보 ▲재단과 유관단체 릴레이 헌혈 참여 ▲

기부·봉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함께 한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앞으로도 재단과 협력해 1980년 광주시민이 보여준 숭고한 나눔 정신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윤목현 이사장은 “5·18민주운동의 상징 중 하나인 헌혈과 관련해 적십자 혈액원과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대와 나눔의 오월 정신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광양제철 봉사단, 장애인 목공예품 전달·공방 입주식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은 지난 22일 광양시 금호동 협력회관에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목공예 제품 전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박경미 전남도의원, 윤승현 광양제철소 행정심의그림장, 조연서 금호동 총무팀장, 정병관 중마노인복지관장, 김선아 지역아동센터협회장을 비롯해 복지시설 관계자와 봉사단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휠체어 식판 50세트가

전달됐다. 전달식과 함께 새롭게 리모델링된 공방 입주식도 열렸다.

냉난방기 교체, 집진기 설치, 인테리어 보수 등 작업을 통해 봉사단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목공예재능봉사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이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챌린지

전남도가 미래 청정에너지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기원하며 전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단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과학적 기반과 역량이 모두 갖춰진 최적지”라며 “전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 주자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윤병대 나주시장을 지목했다. 앞으로 대학 총장, 시장·군수 등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유치를 향한 열망을 모을 계획이다.

인공태양(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 수소를 활용해 청정에



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탄소중립 실현에 최적화된 청정 에너지로서 대규모 전력에 필요한 AI 시대 전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밸리 등 연구·산업 기반을 앞세워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담양 ‘촌닭 참숯불꾸이꾸이’, 취약계층 닭곰탕 기탁

담양군은 23일 “전날 ‘촌닭 참숯불꾸이꾸이’가 닭곰탕 20리본(2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닭곰탕은 담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됐다.

윤기동 촌닭 참숯불꾸이꾸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수담양읍 지사협 위원장은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목포 문화예술협동조합마당 ‘논개 詩낭송 대회’ 금상

목포 문화예술협동조합마당은 “최근 전북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논개 詩낭송퍼포먼스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문학적 감성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로,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예선을 통과한 목포·서울·광주·부산·대구 등 전국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목포시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협동조합마당은 김은미 감독을 비롯한 12명이 참여해 ‘푸르른 강물 오늘, 붉게 물들다’를 공연했으며 장의적인 연출과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



로 조합마당은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김은미 대표는 “창립 후 첫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순천경찰, 전국 첫 ‘시민참여형 보이스피싱 예방’ 시상

순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봉화마루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민참여형 전화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112문자 챌린지’ 시상식을 갖고 시민과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으로는 최현철(사진 가운데) 순천 주암파출소 경감이 수상했다.

‘112문자 챌린지’는 시민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법과 신고 요령을 학습한 뒤 가족·지인에게 예방 문자를 전송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순천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F-Alert



순천(경찰·금융기관 실시간 대응망)’을 구축, 운영 5개월 만에 3건(9천만원)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천=양홍렬 기자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취임



오미란(사진) 제7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이사는 23일 재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2011년 재단 설립 당시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애정이 남다르다”며 “10년6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35년간 ‘여성과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담고 걸어오며 많은 이들과 뜨겁게 연대하고 깊은 공감을 나눠왔다”며 “그 과정에서 쌓인 사회자본과 경험을 광주여성가족재단이라는 마당을 통해 광주 여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존재 이유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있다”며 “더 광주답게, 더 성평등하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시민과 함께 결과가 기억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오 대표이사는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재단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으로 공공정책 분야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젠더&공동체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의성평등 의식 확산과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최명진 기자

전남대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출신

박지원·최윤정씨 ‘해외 KOICA’ 파견



전남대 소속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 출신 박지원(25·여)·최윤정(23·여)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사무소 파견 영프로페셔널(YP)로 최종 선발됐다.

23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KOICA ‘경력사다리 YP’ 제도는 국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KOICA 사무소에서 약 1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38개국 64명이 뽑혔으며 두 사람은 다음 달 중순부터 6개월간 해외 근무를 시작한다.

박씨는 트란다 KOICA사무소, 최씨는 타지키스탄 KOICA사무소에 파견돼 사업관리, 홍보, 자료조사 등 ODA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정난희 센터 사업책임자는 “센터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국제개발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이 KOICA와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본사손님

▲김영근광주지방경찰청장

동문·동창회

●광주대동고총동창회(회장 양승훈) 제23회 한미당축제=26일(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매월동 모교 운동장.

결혼

▲이해영·전민자씨 장남 로아군, 김민중(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지원본부장·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씨 장녀 현지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노치일(광주시체육회 본부장)·김미재(덕수학교 교사)씨 장녀 민희(병영초교 교사)양=26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김승남·최영아씨 장남 경민군, 서경원·김은영(담양 월산보건지소 담당)씨 장녀 정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소풍컨벤션웨딩 7층 베일리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032-624-7777, 010-3232-1768.
▲(故)백길선·박병희씨 아들 성동군, 신현영·정선미(담양군 수북면장)씨 딸 효정양=26일(일) 오후 2시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천동 147-22), 032-228-0000, 010-6876-7883.